



어부단가 | 이현보

이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니젓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제1수>

▶ [제1수] 인세를 잊은 어부의 한가로운 삶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¹⁾이 언제나 님갓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제2수>

▶ [제2수] 욕심 없이 사는 유유자적한 삶

㉢청하(靑荷)²⁾에 바를 뵈고 녹류(綠柳)³⁾에 고기 빼여
노적화총(蘆荻花叢)⁴⁾에 비 띄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⁵⁾를 어느 부니 아를실고

<제3수>

▶ [제3수] 한가로운 자연에서 느끼는 일반청의미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
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르리라

<제4수>

▶ [제4수] 자연에 동화된 삶의 즐거움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⁶⁾이 업스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 [제5수]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과 걱정

[어휘 풀이]

1) 십장홍진 -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청하 - 푸른 연잎. 3) 녹류 - 푸른 버드나무. 4) 노적화총 - 갈대꽃이 피어 있는 숲. 5) 일반청의미 - 한결같이 맑은 뜻. 보통 자연의 참된 의미를 뜻함. 6) 제세현 - 세상을 구할 어진 인제.

[현대어 풀이]

<제1수> 이런 속에(인간 세상 중에)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어부의 생활이로다. /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놓고 /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알겠는가?

<제2수>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 /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어수선했던 세상사)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 강호에 밝은 달이 밝게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제3수> 푸른 연잎에다 밥을 싸고 푸른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떼어, / 갈대꽃이 우거진 곳에 배를 매어 두니, /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사람이 알 것인가.

<제4수> 산머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알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 아무런 사심 없이 다정한 것으로는 이 두가지뿐이로다. / 한평생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놀리라.

<제5수> 서울을 돌아보니 궁궐(임금님 계신 곳)이 천 리로구나. / 고기잡이배에 누워 있은들 (나룻길을) 잊은 적이 있으랴 / 두어라,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세상을 구제할 현인이 없겠느냐?



핵심점점

<어부단가>

시구 풀이

• 이 등에 시름 업스니

- 강가에 내려와 한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런 근심이 없으니
- '이 등에'의 의미가 '부정적인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가운데'를 뜻하고, 이러한 '이 등'의 삶에 대해 화자가 자연 속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 소박한 어부의 삶이로다
- 본 행의 '어부'가 어부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실제 어부'가 아닌,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화자의 한가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 본 행의 '어부'는 '가짜 어부'라 할 수 있다.
- '어부의 생애이로다'의 '~로다'를 통해, 영탄적 표현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놓고
- 강가에서 한가하게 배를 타며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세(人世)를 니젓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알겠는가.
-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채, 고향-자연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이 '날 가는 주를

알려의 '~라'를 통해(의문형 어미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기에, 본 글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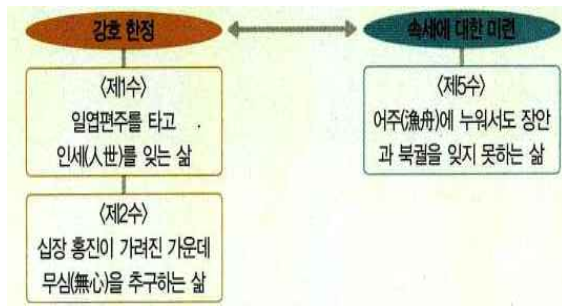
- 구름은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
 - 속세와의 단절 의지를 자연물을 통해 형상화한 구절로, '천(千), '만(萬)'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의미한다.
 - '천심녹수', '만첩청산'과 같은 상투적인 한자어를 통해 자연을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굽어보니 어찌하고, 돌아보니 어찌하다' 라는 식으로 본 행이 구성되어 있기에, 본 행이 대구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황을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행이다.
-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ㄹ렛노고
 - 십 장이나 쌓인 붉은 티끌은
 - '붉은 티끌'을 뜻하는 '홍진'은 '욕망이 가득한 속세'를 가리키는 말로, '타락한 세속'을 가리킨다.
- 언제나 가렛노고
 - 얼마나 가려져 있는고 → 청첩이 쌓인 저 푸른 산들이 환란한 속세를 잘 가려주고 있구나
-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 청산이 홍진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이 자연(강호)에 밝은 달이 밝게 비치니
 - '하얗게 빛나는 밝은 달'을 통해 시각적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십장홍진(속세)'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 세속 일에는 욕심이 없구나. (무욕)
 - 무심의 대상은 세상일이라 할 수 있으며, 강호는 자연을 의미하는 대유법이다. 세상일을 잊고 자연에서 욕심없이 지내 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 청하(靑荷)²⁾에 바블 뵈고
 -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 갇혀진 좋은 식기가 아닌 '연잎'에 밥을 싸서 먹는 것이기에, '청하'는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 녹류(綠柳)³⁾에 고기 떼어
 -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고기를 꿰어
- 노적화총(蘆荻花叢)⁴⁾에 비 미야 두고
 - 갈대꽃이 피어 있는 숲에 배를 매어 놓고
-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⁵⁾를 어느 부니 아를실고
 - 매어 놓은 배 위에서 한가하게 누워 있으니 이렇게 자연 속에서 느끼는 청아한 뜻을 어느 분이 아실 수 있을까
 -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음을 탄탄함
 -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안다는 자부심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 구름 한 조각이 산봉우리에 한가하게 걸쳐 있고 물가에는 갈매기가 한가로이 날고 있구나.
- 구름과 갈매기가 한가하게 하늘 속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잘 연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화자의 시름없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하니
 - 사심이 없고, 정감 있어 보이는 것('다정한 이')이
- 이 두 거시로드
 - 바로 이 '한운'과 '백구'로다
- 일생(一生)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르리라
 - 남은 한평생 시름을 잊고, 너희(한운, 백구)와 함께 놀며 지내리라.
 -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할 수 있다.
-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 서울 쪽으로 돌아 바라보니, 임금이 계신 궁궐이 이곳으로부터 천리나 떨어져 있구나
-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 고기잡이배에 누워 있는들 나룻길(임금)을 잊은 적이 있겠느냐.
 - 고기잡이배에 누워 가어흥(假漁翁)이 된 화자의 모습으로, 전세연의 종장과 달리 세속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상충된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사대부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현실 세계와 자연 친화 사이의 내적 갈등을 넘어 사대부 도리의 표준을 볼 수 있다.
- : 우국정(憂國表情)
 -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 두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 여기서 '시름'은 '나룻길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시름'을 가리킨다.
 - 제세현(濟世賢)⁶⁾이 업스라
 - (나 이외에) 나라를 구제할 현명한 현인(선비)이 없을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자연속에 있겠다.

☑ 특징

- 갈래 :연시조(전5수), 강호한정가
- 성격: 풍류적, 낭만적, 자연친화적
- 대구법, 영탄적 어조(설의법, 영탄법)
- 상투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경 묘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임
 - 천심녹수, 만첩청산
- 시적 화자를 어부로 설정하여 어부 생활의 흥취를 표현하고 있음.

✓ 화자의 내적 갈등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 주제: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은자의 한가로움
- 해제: 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개작한 작품이다. 자연을 벗 삼아 고기잡이를 하는 한가한 삶의 모습을 통해 생업으로서의 고기잡이가 아닌, 자연을 벗하며 세월을 낚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화자는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풍류를 즐기면서도 복궐에 계신 임금에 대한 걱정, 나라를 구제할 선비에 대한 고민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당시 양반들의 의식과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 구성

[제1수] 인세를 잇는 어부의 한가로운 삶

[제2수] 욕심 없이 사는 유유자적한 삶

[제3수] 한가로운 자연에서 느끼는 일반형의미

[제4수] 자연에 동화된 삶의 즐거움

[제5수]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과 걱정